(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0호 별책 (2022. 8.), 27-36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2.8.50s.27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사무엘-열왕기//역대기 평행본문 번역의 상호독회를 위한 제언

김정훈*

1. 들어가는 말

구약성경의 우리말 번역은 1898년 러시아 출신의 선교사 알렉산더 피터스의『시편촬요』이래로,[1] 우리말 구약성경의 첫 완역인『구약젼셔』(1911; 이하『구역』)와[2] 1937년에 완성되었고 이듬해에는 신약성경의 개역과 더불어 출간된『셩경 개역』(이하『개역』)으로[3] 이어졌다. 그리고 1952년에 당시「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맞춤법의 수정·편집을 완성하고, 표기법 수정과 활자 재제작을 다시 거쳐서 1961년에 출간한『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하『개역한글』) 성경이 나오기에 이르렀다.[4] 바로 이 번역본을 그 이후로도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정경으로 사용하였다. 마침내 1998년이 되어서야 이『개역한글』성경은 비로소『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하『개역개정』) 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5]

『개역개정』이 현재 한국 개신교회와 신학에 핵심적인 정경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출간되던 때부터 시작해서 이어온 긍정적·부정적 논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ihoze@hotmail.com.

1) 영인본으로는, 박준서 편/김중은 해설,『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시편촬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를 참조하라.
2) 대영셩셔공회 편,『구약젼셔』(경셩: 대영셩셔공회, 명치44[1911]).
3) 죠션셩셔공회 편,『구약 개역』(경셩: 조션셩셔공회, 昭和 13[1938]).
4) 대한성서공회 편,『성경전서 개역한글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5) 대한성서공회 편,『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4]2005).

의[6]는 마침내 재개정의 결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7] 이 『개역개정』의 재개정 작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역본 자체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이 글에서는 특히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에 있는 평행본문 가운데 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공유하는 본문들 번역에서 거쳐야 할 상호독회 필요성을 몇몇 보기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무엘-열왕기//역대기 평행본문 번역의 상호독회 필요성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의 평행본문은 본문 형태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히브리어 본문이 일치하는 평행본문이다. 이 경우에 번역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같아야 한다. 둘째, 평행본문이지만, 히브리어 본문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히브리어 본문이 일치하는 경우를 절 단위로 좀 더 세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은 첫째 경우로 여겨서 분석해야 한다. 셋째,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 말고 구약성경 안에 또 다른 평행본문이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히브리어가 같은 평행본문의 번역은 원칙상 같아야 하며, 히브리어 본문이 일부 다른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만 번역이 차이 나야 한다. 그 밖에는 히브리어 본문의 차이가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과연 그렇게 차이 날 까닭이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글쓴이가 앞서 『개역개정』의 특징에 관련해서 사무엘-열왕기//역대기의

---

6)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성경원문연구」 2 (1998), 70-74; 나채운, "개역성경 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기독교사상」 42:10 (1998), 158-166; 도한호, "『개역 한글판』 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성경원문연구」 2 (1998), 19-42; 홍근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성경원문연구」 2 (1998), 91-96; 전무용,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성경원문연구」 4 (1999), 65-90; 박동현,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 198-229; 서철원, "개역개정판 성경의 문제—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신학지남」 68:3 (2001), 176-222; 이한수, "개역개정판 '성경전서'에 대한 평가—갈라디아서", 「신학지남」 68:3 (2001), 223-231; 유재원,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 「신학지남」 70:1 (2003), 4-8; 강승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아가 번역의 개정을 위한 주석적 제안", 「구약논단」 38 (2010), 93-113; 강성열, "개역개정판의 창세기 번역 오류 수정을 위한 제안", 「신학이해」 40 (2011), 11-33; 강성열, "개역개정판의 호세아 번역 오류 수정을 위한 제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 (2011), 55-75 등.

7) 2021년 11월 30일 대한성서공회의 제136회 정기이사회 보고 참조. 대한성서공회, "제13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table=bible3&wr_id=103 (2022. 6. 13.).

평행본문 가운데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5장의 보기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8] 『개역개정』은 앞선 『개역한글』의 많은 번역어의 문제점들을 많은 부분에서 개선했음에도, 평행본문의 번역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는 『개역한글』 번역에 있던 문제점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본문 차원과 우리말 표현 차원에서 다 관찰할 수 있다. 둘째로는 『개역개정』에서 문제가 새로 생겨난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본문 차원과 우리말 표현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쪽이 달라지거나 양쪽이 다 달라져서 평행본문 번역의 통일성이 깨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무엘-열왕기와 평행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듯 그 번역도 당연히 같아야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역개정』의 경우 아쉽게도 이 부분의 통일성에 문제를 드러낸다. 더욱이 이전 번역인 『개역』과 그 전통을 기본적으로 이어받은 『개역한글』 성경은 일치하였는데도 『개역개정』에서 달라진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위에서 든 평행본문의 세 분류의 보기를 들어 이런 경우들에 대한 상호독회의 필요성을 살펴보려 한다.[9]

2.1. 히브리어 본문이 일치하는 경우

(삼하 7:17)

MT	כְּכֹל הַדְּבָרִים הָאֵלֶּה וּכְכֹל הַחִזָּיוֹן הַזֶּה כֵּן דִּבֶּר נָתָן אֶל־דָּוִד
『구역』	나단이 이 모든 말ᄉᆞᆷ과 이 모든 믁시대로 다윗의게 고ᄒᆞ니라
『개역』	나단이 이 모든 말삼과 이 모든 믁시대로 다윗의게 告하니라
『개역한글』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개역개정』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8) 김정훈, "열왕기-역대기 평행본문의 개역개정판 번역에 대한 소고 — 열왕기상 8:1-53//역대하 5:2-6:42 평행본문을 보기로 —", 성경원문연구 35 (2014), 48-69.

9) 여기서 사용한 우리말 고역본 성경 본문은 대한성서공회의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음을 밝힌다(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4).

(대상 17:15)

MT	כְּכֹל הַדְּבָרִים הָאֵלֶּה וּכְכֹל הֶחָזוֹן הַזֶּה כֵּן דִּבֶּר נָתָן אֶל־דָּוִיד
『구역』	나단ᄋᆡ 이 모든 말ᄉᆞᆷ을 좃차 이 모든 믁시대로 다윗의게 고ᄒᆞ니라
『개역』	나단이 이 모든 말삼과 이 모든 믁시대로 다윗의게 고하니라
『개역한글』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개역개정』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위의 두 본문은 “묵시”에 해당하는 낱말의 미세한 차이(הֶחָזוֹן/הַחִזָּיוֹן)를 제외하면, 히브리어 원문은 일치한다. 이 본문의 『구역』은 번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로”를 뜻하는 비분리 전치사 “כְּ”(크)와 연결된 구문을 사무엘서에서는 한 번으로 묶어서 “이 모든 말ᄉᆞᆷ과 이 모든 믁시대로”로 옮겼는데, 역대기에서는 따로 떼고 우리말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 모든 말ᄉᆞᆷ을 좃차 이 모든 묵시대로”로 옮겼다. 그러니 둘 사이의 통일성 고려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반면에, 『개역』에서는 사무엘서의 번역으로 일치를 이루었으며, 이 번역은 『개역한글』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물론 다른 용례들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아래의 보기에서 보듯 『개역』 및 『개역한글』도 면밀한 상호독회를 통해 평행본문의 번역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는 두 번역의 일치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위의 보기 본문에서 뚜렷이 볼 수 있듯이 『개역개정』에서는 제각각 본문이 달라졌다. 사무엘서의 개정자는 원문의 “הַדְּבָרִים”(하드바림)이 복수형인 점을 번역에 반영하여 “말씀들”로 개정했지만, 역대기 개정자는 이전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옮겼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동사 “דִּבֶּר”(딥베르)를 『구역』에서부터 “고하니라”로 옮겼던 전통에 대해, 두 개정자는 제각각의 원칙에 따라 오늘날 쓰이는 말로 옮겼다. 하지만, 두 개정자가 서로 상호독회를 거치지 않아서 사무엘서에서는 “말하니라”로, 역대기에서는 “전하니라”로 옮겨서 달라졌다. 이런 형태의 번역 차이는 저마다 정당성이 있지만, 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두고 달리 번역할 까닭은 전혀 없다. 분명히 어느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2.2. 히브리어 본문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삼하 7:5)

MT לֵךְ וְאָמַרְתָּ אֶל־עַבְדִּי אֶל־דָּוִד כֹּה אָמַר יְהוָה
הַאַתָּה תִּבְנֶה־לִּי בַיִת לְשִׁבְתִּי

『구역』 가셔 내 죵 다윗의게 말ᄒᆞ기 여호와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시기를 네가 나를 위ᄒᆞ야 나의 거ᄒᆞᆯ 집을 짓겟ᄂᆞ냐

『개역』 가셔 내 종 다윗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삼이 네가 나를 위하야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나냐

『개역한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개역개정』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대상 17:4)

MT לֵךְ וְאָמַרְתָּ אֶל־דָּוִיד עַבְדִּי כֹּה אָמַר יְהוָה
לֹא אַתָּה תִּבְנֶה־לִּי הַבַּיִת לָשָׁבֶת

『구역』 내 죵 다윗의게 가셔 고ᄒᆞ기를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너는 나의 거ᄒᆞᆯ 집을 세우지 말나

『개역』 가셔 내 종 다윗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삼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나

『개역한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개역개정』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두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은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어순의 차이(לְשָׁבְתִּי/אֶל־עַבְדִּי אֶל־דָּוִד ~ אֶל־דָּוִיד עַבְדִּי)와 인칭대명사 유무(לָשָׁבֶת)의 사소한 차이 외에, 이 두 본문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곧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진술을 수사의문문으로 표현한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부정문(否定文)으로 진술한다. 이 차이는 본문비평의 문제가 아니라, 두 본문의 신학적 관점이 들어 있는 의도적 진술 차이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 없다는 원칙적인 진술이 강조되는데,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그 시점이 다윗 시대는 아니라는 점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10]

10) 참조. S. Japhet, *1 Chronik*, HThKAT (Freiburg, et al.: Herder, 2002), 314; G. N. Knoppers, *1 Chronicles 10-20*, AYB 12A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4), 675.

『구역』은 이 셋째 문장구조의 차이점(“짓겟ᄂᆞ냐”/“세우지 말나”) 말고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개역』 및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평행본문의 같은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다른 번역이 눈에 띈다. 곧 이른바 사자전언양식(כֹּה אָמַר יְהוָה; 코 아마르 야훼; messenger formula)의 서로 다른 번역(“여호와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시기를”/“여호와의 말ᄉᆞᆷ이”)이다. 『개역』에서는 이 부분에서 역대기의 번역으로 통일했으며(“여호와의 말씀이”), 이는 『개역한글』로 이어졌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다시 달라졌다. 사무엘서의 개정자는 사자전언양식의 특징을 살려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 옮겼는데, 역대기의 개정자는 이 부분을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후반절 히브리어 본문의 “לִי”(리; “나를 위하여”)가 『구역』에서부터 계속 사무엘서의 번역에만 반영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에 인칭대명사의 유무가 고려되지 않은 번역(לְשָׁבְתִּי, 르쉬브티; “내가 살”/לָשָׁבֶת, 라샤베트; “내가[?] 거할”)도 재고해야 하며, 같은 부정사형(שֶׁבֶת, 쉐베트<יָשַׁב, 야샤브)의 서로 다른 번역(“살”/“거할”)도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처럼 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번역을 하는 현상은 반드시 상호독회를 통해 자세히 검토하고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2.3. 셋 이상의 평행본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경우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 가운데는 더러 예언서(사 36-39장; 렘 52장 등)나 시편(시 18장 등) 등에서도 평행본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좀 더 복잡하다. 여기서는 열왕기하 18:13//역대하 32:1//이사야 36:1을 보기로 들어 살펴본다.

(왕하 18:13)

MT	וּבְאַרְבַּע עֶשְׂרֵה שָׁנָה לַמֶּלֶךְ חִזְקִיָּה עָלָה סַנְחֵרִיב מֶלֶךְ־אַשּׁוּר עַל כָּל־עָרֵי יְהוּדָה הַבְּצֻרוֹת וַיִּתְפְּשֵׂם׃
『구역』	히스기야 왕 뎨 십ᄉᆞ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나와 유다 모든 견고ᄒᆞᆫ 셩을 쳐셔 취ᄒᆞ니
『개역』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나와셔 유다 모든 견고한 셩읍들을 쳐셔 취하매
『개역한글』	히스기야 왕 십 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개역개정』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대하 32:1)

MT אַחֲרֵי הַדְּבָרִים וְהָאֱמֶת הָאֵלֶּה בָּא סַנְחֵרִיב מֶלֶךְ־אַשּׁוּר
וַיָּבֹא בִיהוּדָה וַיִּחַן עַל־הֶעָרִים הַבְּצֻרוֹת
וַיֹּאמֶר לְבִקְעָם אֵלָיו׃

『구역』 이 모든 진실ᄒᆞᆫ 일을 힝ᄒᆞᆫ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드러와셔 진을 치고 견고ᄒᆞᆫ 셩읍을 쳐셔 취ᄒᆞ고져 ᄒᆞ거ᄂᆞᆯ

『개역』 이 모든 충셩된 일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드러와셔 견고한 셩읍들을 향하야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져 한지라

『개역한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개역개정』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사 36:1)

MT וַיְהִי בְּאַרְבַּע עֶשְׂרֵה שָׁנָה לַמֶּלֶךְ חִזְקִיָּהוּ עָלָה סַנְחֵרִיב
מֶלֶךְ־אַשּׁוּר עַל כָּל־עָרֵי יְהוּדָה הַבְּצֻרוֹת וַיִּתְפְּשֵׂם׃

『구역』 히스기야 왕 뎨 십ᄉᆞ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나와 유다 모든 견고ᄒᆞᆫ 셩을 쳐셔 취ᄒᆞ니라

『개역』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나와셔 유다 모든 견고한 셩읍들을 쳐셔 취하니라

『개역한글』 히스기야왕 십 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개역개정』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세 평행본문에서는 흥미롭게도 열왕기와 이사야의 본문이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본문이 같은 반면에, 역대기의 본문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열왕기와 이사야서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야기 첫 부분의 도입이다. 열왕기의 본문이 전치사 구문을 써서 "וּבְאַרְבַּע עֶשְׂרֵה שָׁנָה"(우브아르바 에스레 샤나; 14년에)로 표현한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전형적인 이야기체의 시간 도입구인 "וַיְהִי בְּאַרְבַּע עֶשְׂרֵה שָׁנָה"(바

예히 브 아르바 에스레 샤나; 14년에)로 썼다. 하지만 이 두 표현은 사실상 같은 뜻이며, 특별한 차이로 볼 수는 없다. 나머지는 인명 히스기야에 대한 정서법상(orthographic)의 차이다(חִזְקִיָּהוּ/חִזְקִיָּה). 그러니 두 본문은 근본적으로 같은 형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에 비교해 역대기의 본문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지만, 표현이 상당히 다르다. 먼저, 히스기야의 통치 연대를 밝히는 대신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אַחֲרֵי הַדְּבָרִים וְהָאֱמֶת הָאֵלֶּה, 아하레 하드바림 브하에메트 하엘레)라고 하여 앞선 히스기야의 개혁 활동(대하 29-31장)에 대한 역사가의 요약 평가가 담긴 이행양식(移行樣式, Überleitungsformel)[11]으로 시작한다. 산헤립의 침공도 열왕기와 이사야서의 전통이 "올라오다"(עָלָה, 알라)라는 동사를 써서 예루살렘 시점의 진술을 한 데 비해, 역대기는 "들어오다"(בּוֹא, 보)는 동사를 2번이나 써서 침공의 어감을 더 살린다. 그리고 열왕기와 이사야에서 산헤립의 침공 대상이 처음부터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כָּל־עָרֵי יְהוּדָה הַבְּצֻרוֹת, 콜-아레 예후다 하브추로트)이라고 한 데 반해, 역대기에서는 "유다에 들어와서"(וַיָּבֹא בִיהוּדָה, 바야보 비후다)라고만 표현한다. 그런 뒤에 견고한 성읍들을 대항해 진을 쳤다고 진술한다. 게다가 마지막 본문 차이인 "점령하고자 한지라"(וַיֹּאמֶר לִבְקָעָם אֵלָיו, 바요메르 르비크암 엘라브)를 보면,[12] 평행본문(וַיִּתְפְּשֵׂם, 바이트프쉠;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점령했다")이나 산헤립의 역사기록과는 달리 이 시점에 점령을 계획만 했을 뿐이라고 여길 수 있다. 아마도 이는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성읍을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려는 신학적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13]

이런 본문의 우리말 번역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열왕기//이사야의 본문 "וַיִּתְפְּשֵׂם"(바이트프쉠)은 분명히 '성읍을 점령하여 차지하다'를 뜻한다(참조. 신 20:19; 수 8:8; 왕하 14:7; 16:9). 문제는 이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이다. 열왕기//이사야 본문의 번역 전통은『구역』에서부터『개역한글』에 이르기까지 줄곧 "쳐서 취하다"로 옮겼다. 번역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개역개정』에 와서 번역어가 갈렸다. 이사야의 개정자는 전통적인 번역어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열왕기의 개정자는 여기서 "쳐서 점령하매"로 바꿨다. 아마도 오늘날 더 흔히 쓰이는

11) S. Japhet, *2 Chronik*, HThKAT (Freiburg, et al.: Herder, 2003), 423.

12) 동사 "אָמַר"(아마르; '말하다')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먹다'는 뜻으로 쓰인 것과 관련해서는 출 2:14; 삼하 21:16; 왕상 5:19; 대하 28:10, 13 등의 용례를 보라.

13) 참조. Japhet, *2 Chronik*, 424; R. W. Klein, *2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460.

용어를 선택한 듯하다. 하지만 같은 문맥에 있는 같은 낱말의 번역어가 달라야 할 까닭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둘 가운데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두 번역이 제각각 "쳐서 점령하매"//"쳐서 취하니라"로 다른 것은 문맥상 허용할 수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열왕기에서 이어지는 14-16절은 열왕기에만 있는 자료다. 반면에 이사야 36:2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열왕기하 18:17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을 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다르다면『구역』에서부터 줄곧 다르게 번역한 마지막 부분은 허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기의 번역은 전반적으로 평행본문과 차이가 있으므로, 번역의 차이는 허용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지막 낱말의 번역은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여기서 쓰인 동사 "בָּקַע"(바카)는 어원적으로 '쪼개다'에서 비롯했다. 전쟁의 배경에서는 진열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보기로는 사무엘하 23:16//역대상 11:18이나 역대하 21:17(평행본문 없음)의 보기를 들 수 있다. 이 구절들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낱말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본문	삼하 23:16//대상 11:18	대하 21:17
『구역』	츙돌ᄒᆞ고 지나가셔	침노ᄒᆞ야
『개역』	츙돌ᄒᆞ고 지나가셔	침노하야
『개역한글』	충돌하고 지나가서	침노하여
『개역개정』	돌파하고 지나가서	침략하여

사무엘하//역대상의 본문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우물물을 길어 온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이며, 역대하의 본문은 블레셋의 유다 침략을 언급하는 문맥이다. 문맥을 놓고 보자면 역대하 21:17의 본문이 우리의 본문과 더 가깝다고 하겠다. 한편, 역대하 32:1의 번역인 "쳐서 취하다/쳐서 점령하다"는 히브리어 낱말을 고려했다기보다는 히브리어 원문이 다른 평행본문의 영향을 거꾸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평행본문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역대하 21:17의 번역어와 통일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검토는 평행본문을 번역하고 개정하는 이들이 함께 서로 상호독회를 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겠다.

3. 나오는 말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의 평행본문 번역은 누가『개역개정』의 어느 부분을 펴서 검토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많다. 사실상『구역』은 상호독회를 통한 평행본문 번역의 통일성은 염두에 둔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개역한글』은 상대적으로 통일성의 경향은 있으나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개역개정』은 다시『구역』처럼 평행본문 번역의 상호독회를 고려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개정자들의 판단에 맡겨 두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제『개역개정』의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시점에『개역개정』에서 발견되는 평행본문 번역의 불일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히브리어가 같은 본문에서 번역어는 반드시 일치하도록 통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행본문의 목록을 세심하고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제각각 책의 개정자들이 개정작업을 한 뒤 반드시 정밀하게 비교하고 통일하는 상호독회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개역개정』의 재개정이 체계성과 통일성을 더하여 말씀에 기초하는 한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3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7월 27일)